

# 幙目に 關한 研究

## A Study of Myokmok

유 관 순  
건양대학교 의상아동학부 의상학 전공

Yoo, Kwan Soon  
Dept. of Clothing, Kony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yokmok(幙目), a kind of shroud.

This study classifies Myokmok by its size, shape, cloths and color.

Korean Myokmok through literatures are as follows. The size of Myokmok was one Ch'ok(尺) two Ch'on(寸). The surface of Myokmok were mostly black and the lining was mostly red. The cloths of Myokmok were Paek(帛) and Chu(紬).

Myokmok through relics was various in size and the cloths were Kongdan(貢緞), Myongchu(明紬) and the color was various.

Actual conditions of current Myokmok were various. The size, shape and cloths were more variable than the literatures and relics.

In the Chinese Myokmok through literatures, the size were one Ch'ok two Ch'on, one Ch'ok and one Ch'ok five Ch'on. The cloths of Myokmok were Paek and Kyon(絹). The surface of Myokmok were mostly black and the lining was mostly red. Myokmok in Munkonggaryoieuchul(文公家禮儀節) was tide by the strings of four corners.

The size of the Chinese Myokmok was various. The shape of the current Myokmok was various than the literatures and relics.

**Key words** : Myokmok, shape, size, cloths, color

## I. 緒 論

본 연구는 冠婚喪祭 중에서도 어느 의식보다도 禮를 갖추어 정중하게 치름으로써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던 중요한 儀式인 喪禮(조효순, 1988: 이수봉, 1986: 유관순, 1990) 중 돌아가신 분에게 입혀

드리고 관속에 넣어드리는 예복으로서의 襲衣인 襚衣(조우현, 1989: 임명미, 1997: 유송옥, 1998)의 여러 품목 중에서 남녀 공용수의의 하나인 얼굴을 덮는 용도로서의 幙目に 관한 것으로, 이 幙目은 문헌적인 내용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물과 현행 수의의 품목에서도 빠짐없이 襚衣의 필수품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Yoo, Kwan Soon  
Tel. 041)730-5127, Fax. 041)736-4078  
E-mail : yoosim@kytis.konyang.ac.kr

이에 본 논문에서는, 襖衣의 논의내용이 대부분 많은 禮書가 발간되었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男女 襖衣의 共用 品目の 하나인 幪目에 대해서도, 조선조의 禮書를 중심으로 한 文獻인 내용과 遺物·現行에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예서의 내용과도 비교하여 봄으로써, 幪目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은 물론, 襖衣에 관련된 내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둔다.

分析內容은 한국의 文獻과 유물·現行에 나타난 幪目の 치수와 形態, 使用法, 衣次, 色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문헌적인 내용과도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문헌적인 내용은 조선시대의 禮書 중 朱子家禮를 근거로 한 여러 저서 중 널리 알려진 李穡의 「四禮便覽」을 비롯하여(김두헌, 1936: 이정옥, 1974: 장철수, 1988: 박혜인, 1988: 유관순, 1995: 임돈희, 1996: 이재, 1884) 「常變通攷」(유장원, 1783), 「家禮考證」(조호익, 1646), 「家禮輯覽」(김장생, 1685), 「疑禮問解」(김장생, 1646), 「家禮源流」(유계 외, 1742), 「家禮增解」(이선조, 1824), 「喪禮備要」(신의경, 1621),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고, 中國의 禮書는 「家禮」(주희, 1759), 「文公家禮儀節」(구준, 1626), 「儀禮」(정현), 「大明集禮」(태조, 1369), 등에 나타난 幪目에 관한 論議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유물과 현행의 내용은 이미 발표한 논문(유관순, 1990)에 根據하여 比較 研究하였다.

## II. 幪目에 대한 概念

幪目は 수의의 여러 남녀 공용 품목중의 하나로서, 四禮便覽에 의하면 「覆面者」라고 하여(이재, 1844) 소렴 때 얼굴을 덮거나 얼굴을 싸는 형질이다.(신준호, 1991) 幪目は 瞑目(충문공신종록) 또는 面帽(한산이씨신종록: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幪帽(국립민속박물관, 1990), 面衣(유계, 1742: 태조, 1369)라고도 하는데,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명목은 눈을 감음, 죽음 등으로 풀이할 수 있고, 영어의 closing one's eyes, death 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양주동, 1988)

幪目の 발음에 대하여 「家禮增解」(이선조, 1824)에는 「說文」을 인용, 冪人의 冪(덮을 먹, 덮다, 덮개, 씌우개)이라 하였고, 註에는 「巾」으로 물건을 덮는 것」을 冪이라 하였으며, 「家禮源流」(유계, 1742)에서는 幪의 음을 覓(먹 : 찾다, 구하다)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幪目이라는 용어는 근본 뜻은 같으나, 각 지역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면막수((面膜수), 명모, 맨모, 명목(瞑目) 면(面)모, 명막수, 면포(面布), 낫보, 낫모, 드랑다리(유관순, 1990), 일굴싸개, 면건, 낫싸개, 낫덮개, 주둥다리(곽명숙, 1999) 등으로 다양하다.

위에서 자주 쓰여지는 膜(막 : 눈이 흐리다, 눈이 어둡다)과 瞑(명 : 눈을 감다, 눈이 어둡다, 눈을 흐리다)(홍자출판사 편집부, 198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7)의 의미를 幪目에서의 幪(먹 : 덮다, 덮어씌우다)과 비교해보면, 눈을 덮어서 어둡거나 눈감은 후에 덮게 되므로 근본적인 뜻은 같으나 지역에 따라서 불리지는 대로, 또는 들리는 대로 전해오면서 여러 가지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 III. 幪目에 관한 考察

### 1. 朝鮮時代의 幪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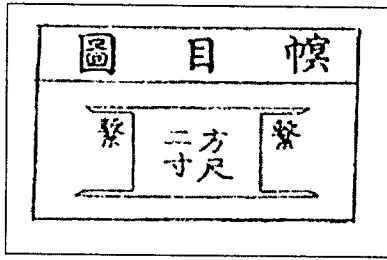
#### 1) 文獻上

##### ① 幪目の 치수와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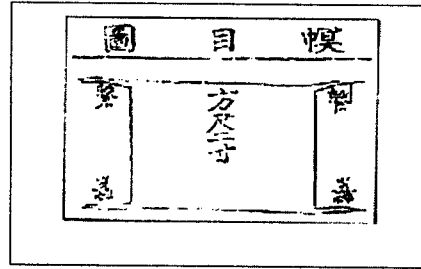
幪目の 치수와 形態에 관한 논의(이재, 1844: 유장원, 1783: 조호익, 1646: 이선조, 1824: 신의경, 1621: 신숙주, 1475)에서, 「四禮便覽」에 의하면 <士喪禮>疏에 네모에 끈이 있다고 하였고, 註에는 솜으로서 채운다고 하였다.

「國朝五禮儀」에는 四角에 紫綃로 된 끈을 두어 뒤에서 맨다고 되어 있고, 「喪禮備要」와 「家禮增解」, 「常變通攷」, 「家禮考證」에서도 솜으로 채우며 四角에 끈이 있어 뒤에서 맨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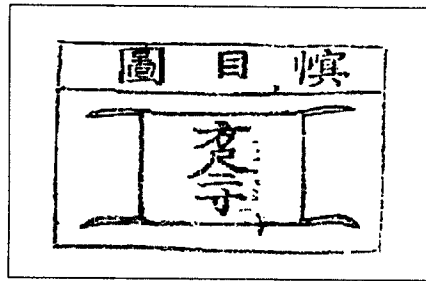
幪目の 치수는 方尺 2寸의 경우만을 나타내었고, 형태는 <그림1> - <그림5>와 같다(이재, 1844: 김장생, 1685: 유계, 1742: 이선조, 1824: 신의경, 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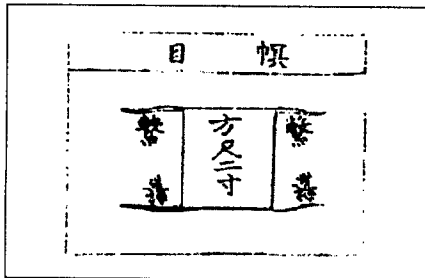
〈그림 1〉 幙目圖(四禮便覽喪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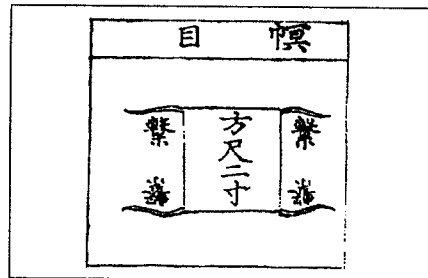
〈그림 2〉 幙目圖(喪禮備要圖)



〈그림 3〉 幙目圖(家禮增解. 卷4. 張28.)



〈그림 4〉 幙目圖(家禮源流. 卷6. 張25.)



〈그림 5〉 幙目圖(家禮輯覽. 圖說. 張36.)

② 幙目の 使用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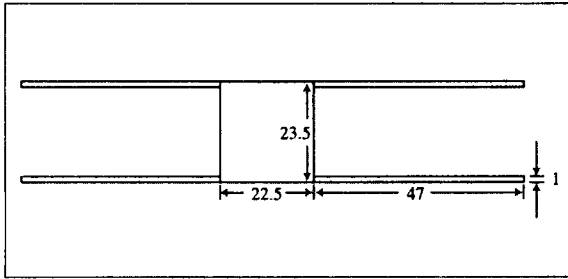
幙目の 사용법은 모두 幙目の 안에 솜을 두며, 四角에 끈을 두어 머리 뒤에서 맨다고 하였다.(이재, 1844: 이선조, 1824: 신의경, 1621)

幙目이 사용되는 小殮의 과정 중에, 衾으로써 싸되 絞로 아직 매지 않고 아직 그 얼굴을 덮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孝子가 아직도 그 死者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려 수시로 그 얼굴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죽은지 하루 이틀 사이에 혹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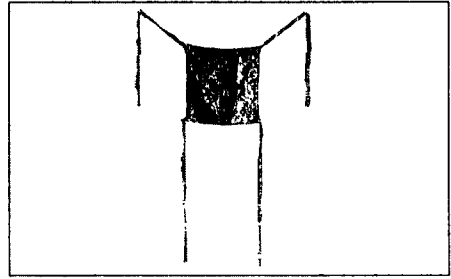
絞를 매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여 幙目の 사용에 앞서 孝子의 지극한 情을 보여주고 있다.(김장생, 1685: 이혁, 1867)

③ 幙目の 衣次와 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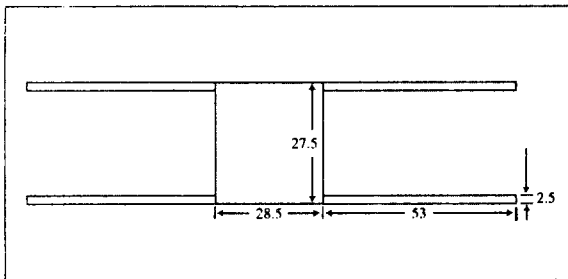
幙目の 衣次는 帛이나 絹, 紬 등이고, 色은 겉과 안의 색이 緇(검을 치)와 經(붉을 정), 緇와 纁(분홍빛 훈)으로 겉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이다.(이재, 1844: 유장원, 1783: 김장생, 1685: 유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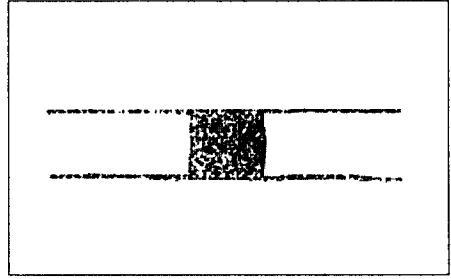
〈그림 6〉 幟目 1(金海許氏)



〈寫眞 1〉 幟目 1(金海許氏)



〈그림 7〉 幟目 2(金海許氏)



〈寫眞 2〉 幟目 2(金海許氏)

1742: 이선조, 1824: 신의경, 1621)

## 2) 遺物上

遺物에서의 幟目은 溫陽民俗博物館의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査報告書, 石宙善民俗博物館의 資料, 文化財管理局의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査報告書 등의 內容을 중심으로 하였다.

### ① 幟目の 치수와 形態

#### 가. 幟目 1

金海 許氏 墓에서 出土된 幟目 1의 치수와 형태를 보면 <그림 6>, <寫眞 1>과 같다. 끈이 4개 있는데 네 귀통이에 끈을 넣어서 바느질했고, 크기는 가로가 22.5cm이고 세로가 23.5cm이며, 끈은 너비가 1cm이고 길이가 47cm이다.(국립민속박물관, 1990: 유희경 외, 1989)

#### 나. 幟目 2

幟目 2는 金海許氏의 墓에서 出土된 것으로, 치수와 형태는 <그림 7>, <寫眞 2>와 같다.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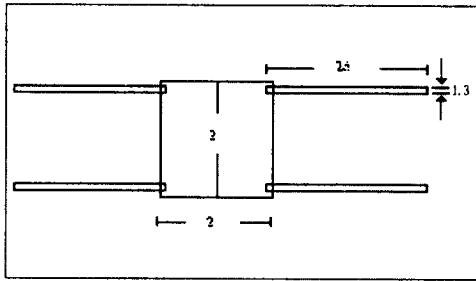
기는 가로가 28.5cm, 세로가 27.5cm이며 끈의 너비는 2.5cm이고, 길이는 53cm이다. 끈 4개가 네 귀통이에 달렸는데, 위에서 눌러 박았다.(국립민속박물관, 1990: 유희경 외, 1989)

#### 다. 幟目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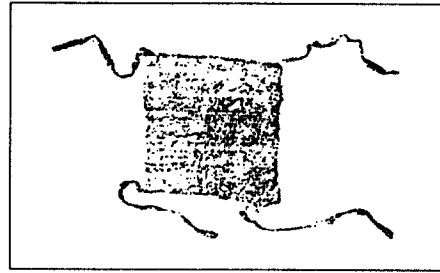
幟目 3은 傳朴將軍墓에서 出土된 것으로 치수와 형태는 <그림 8>, <寫眞 3>과 같다.(김동욱 외, 1980, pp.68-69)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21cm로 같고, 끈의 길이는 26cm, 끈의 너비는 1.3cm이며, 네 귀통이에 4개의 끈이 달려있다.

#### 라. 幟目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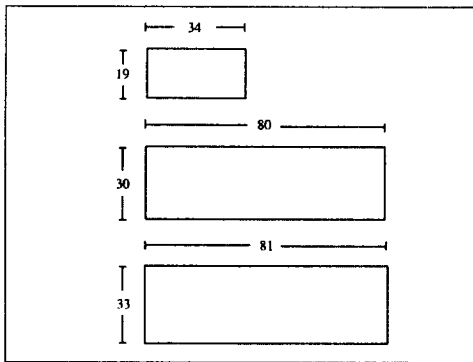
幟目 4는 求禮孫氏 墓에서 出土된 것으로 3점이 있는데, 이 3점의 크기가 모두 다르다. 치수와 형태는 <그림 9>, <寫眞 4>와 같은데,(김동욱 외, 1980, pp.16-17) 하나는 가로가 34cm, 세로가 19cm이고, 또 하나는 가로가 80cm, 세로가 30cm이며, 다른 하나는 가로가 81cm, 세로가 33cm로 각각 다르고, 3개의 먹목 모두 끈이 달려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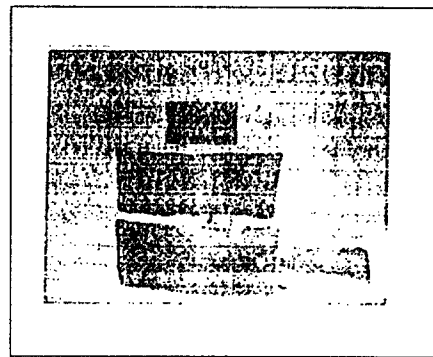
〈그림 8〉 幟目 3(傳朴將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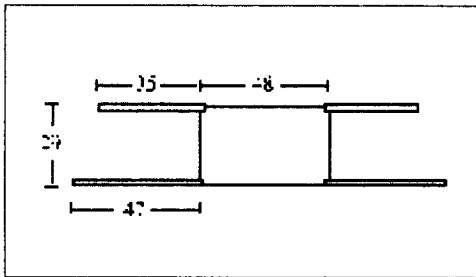
〈寫眞 3〉 幟目 3(傳朴將軍)



〈그림 9〉 幟目 4(求禮孫氏)



〈寫眞 4〉 幟目 4(求禮孫氏)



〈그림 10〉 幟目 5(제주고씨)



〈寫眞 5〉 幟目 5(제주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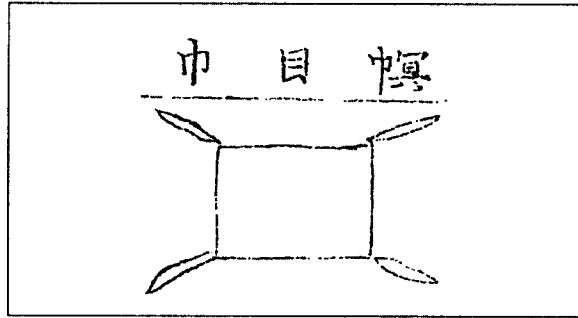
마. 幟目 5

幟目 5는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 고씨의 墓에서 出土된 것으로, 형태는 <그림 10>, <寫眞 5>와 같다.(고부자, 1997) 크기는 가로 48cm, 세로 29cm이며, 네 귀에 가늘고 긴 끈이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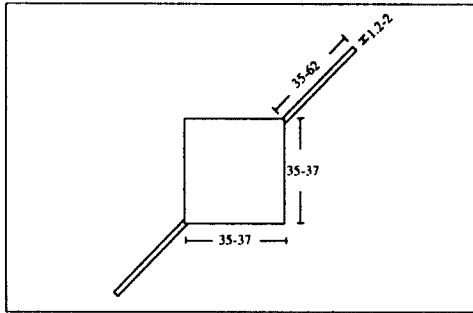
② 幟目の 衣次와 色

幟目 1의 衣次와 色을 보면 겉은 짙은 갈색 貢緞, 안은 연한 갈색 貢緞이며, 幟目 2의 衣次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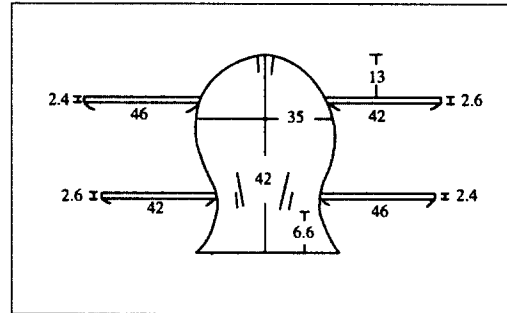
대화단이고, 색은 연보라색이다. 幟目 3의 衣次와 色은 素色 明紬이고, 幟目 4의 衣次와 色은 조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幟目 5의 衣次는 안은 明紬이다. 이 외에 愼終錄에 나타난 幟目の 衣次와 色을 보면 「正文公愼終錄」(김수근 신중록)은 겉이 冒色大貢緞, 안이 紅貢緞인데 비해서, 「忠文公愼終錄」은 겉과 안이 黑貢緞이고, 「韓山李氏愼終錄」은 겉이 紫의 貢緞, 안이 藍貢緞으로 衣次와 色이 겉과 안이 서로 달랐다.



〈그림 11〉 巾目圖(文公家禮儀節. 卷 4. 張 33.)



〈그림 12〉 巾目(정한진·김일산·정화자 이경옥藏, 葬儀社藏 男·女 上品의 模型圖)



〈그림 13〉 巾目(尹寓藏의 模型圖)

## 2. 中國 禮書上的 巾目

中國禮書上的 巾目に 대하여 서술함에 있어, 본 논문에서 다룬 예서인 家禮, 文公家禮儀節, 儀禮, 大明集禮에서 巾目に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양적으로 적은 분량이어서 본 내용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 1) 巾目の 치수와 形態

中國 文獻에서의 巾目の 치수와 形態를 보면, 「家禮」(주희, 1759), 「文公家禮儀節」(구준, 1626), 「儀禮」(정현)에서는 모두 方 1尺 2寸이고, 「大明集禮」의 庶人편(태조, 1369)에서는 方 尺 5寸으로 되어 있으며, 「大明集禮」의 唐制(태조, 1369)에서는 方 尺으로 되어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形態는 <그림 11>과 같이 사각형의 형태에 끈이 4개이다.

### 2) 巾目の 使用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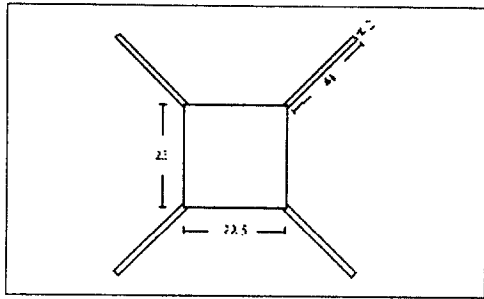
巾目の 使用法에 대하여 모두 巾目の 안에 숨을 두며, 四角에 끈을 두어 머리 뒤에서 맨다고 하였다.(주희, 1759: 구준, 1626: 정현)

### 3) 巾目の 衣次와 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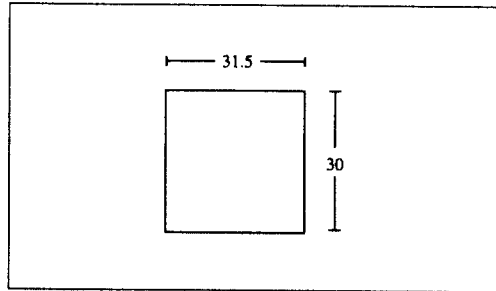
巾目の 色은 「家禮」(주희, 1759), 「儀禮」(정현), 「大明集禮」의 宋에서는 緇經으로 되어 있으며, 「大明集禮」의 唐에서는 玄纁이었고, 衣次는 帛과 絹이었다.(구준, 1626: 태조, 1369)

## 3. 韓國 現行 巾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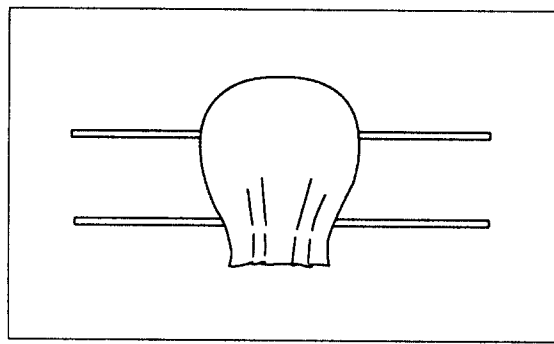
현행에서의 巾目の 내용은 앞서 명시한대로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각 지방의 민속자료, 본인의 현지 면담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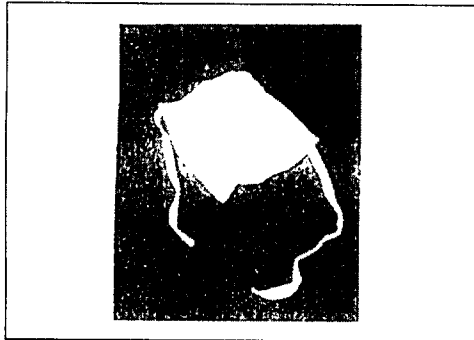
〈그림 14〉 幟目(양천許氏藏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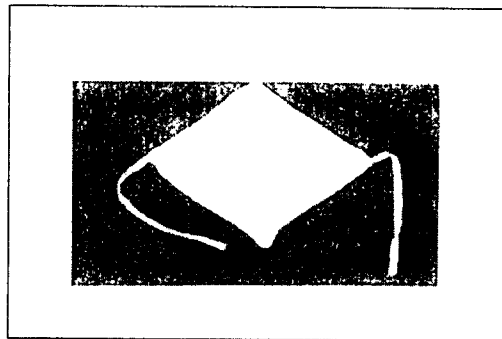
〈그림 15〉 幟目(葬儀社藏 男·女下品の 模型圖)



〈그림 16〉 幟目(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침선장 정정완의 손길-전시회 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정정완, 1999)



〈寫眞 6〉 幟目(정한진·이경옥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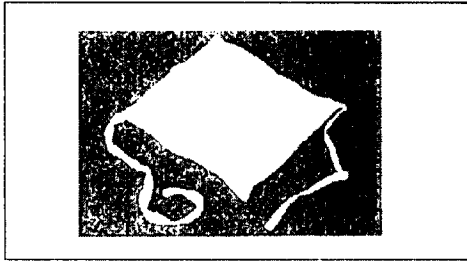


〈寫眞 7〉 幟目(葬儀社藏 男子 上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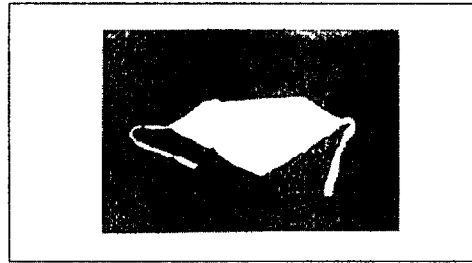
1) 幟目の 寸수와 形態

現行 幟目の 寸수와 形態를 보면, 〈그림 12〉~〈그림 16〉, 〈寫眞 6〉~〈寫眞 9〉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는 22.5cm~37cm 정도로 다양하고, 세로는 25cm~42cm로 다양하다. 끈의 수가 각각 다르고, 끈 길이와 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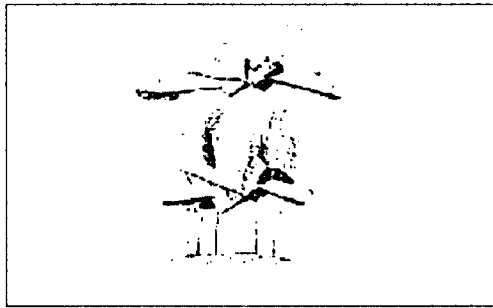
도 다르며, 끈이 없는 경우(〈그림 15〉)도 있었다. 형태도 여러 가지로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또는 〈그림 13〉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寫眞 8〉 幘目(葬儀社藏 女子 上品)



〈寫眞 9〉 幘目(정화자藏)



〈寫眞 10〉 幘目(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침선장 정정완의 손길-전시회 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정정완, 1999)

## 2) 幘目の 衣次와 色

떡목의 의차와 색을 제시함에 있어 여러 자료에서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림별로 의차와 색을 명시하지 않고 전부 합하여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幘目の 衣次는 삼베, 明紬, 眞緞, 인조견, 옥양목, 당목, 인조 마포 등이었으며, 색은 白色, 素色, 白色에 가까운 연한 색 등이었다.

## IV. 韓國·中國 幘目の 比較

앞에서 제시한 조선시대 예서·유물·현행·중국 예서를 통해서 본 幘目の 비교내용을 表로 나타내면 <表 1>과 같다.

치수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예서에서의 幘目の 치수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方尺 2寸으로 치수가 동일하였고, 유물에서의 幘目은

가로가 21, 22.5, 28.5, 34, 48, 80, 81cm 등으로 21 - 81cm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세로는 19, 21, 23.5, 27.5, 29, 30, 33cm 등으로 19 - 33cm의 범위를 나타내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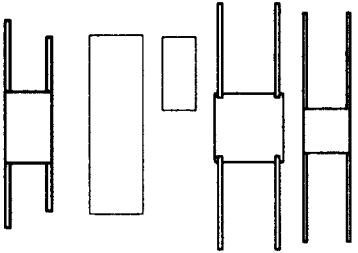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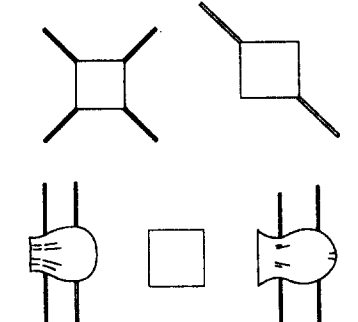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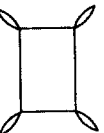
현행에서의 幘目の 치수는 앞에 제시한 그림을 통하여 보면, 가로가 22.5 - 37cm, 세로가 25 - 42cm로 유물과 같이 다양한 길이와 폭을 나타내어 준비자의 형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衣次의 내용을 보면, 朝鮮時代와 中國의 禮書에서 帛의 사용이 두드러졌고, 紬와 絹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遺物에서는 眞緞, 明紬의 사용이 두드러졌고, 현행에서는 삼베와 明紬, 眞緞의 사용이 많았다.

색의 내용을 보면, 朝鮮時代의 禮書에서는 곁이 緇, 안이 纁과 經으로, 中國 禮書에서는 곁과 안이 玄과 纁, 緇와 經으로 곁이 검은 색, 안이 붉은 색이어서 같은 내용을 나타내었다. 유물에서는 진갈색, 연갈색, 연보라색, 소색, 흑색, 자적색,



〈表 1〉 幀目 의 치수 · 形態 · 衣次 · 色 의 比較

區分	朝鮮時代의 禮書							中國의 禮書				
	喪禮要 備	家禮覽 幀	家禮源流	家禮增解 通次	家禮考證	四禮 便覽	家禮	大明集禮 庶人 (唐, 宋)		文公家 禮節	儀禮	
內容	文獻	喪禮要 備	家禮覽 幀	家禮源流	家禮增解 通次	家禮考證	四禮 便覽	家禮	大明集禮 庶人 (唐, 宋)	文公家 禮節	儀禮	幀
치수	方尺 2寸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方尺 2寸	方尺	方尺 5寸	方尺 2寸	左同
衣次	帛, 紬	帛	帛, 紬	帛	帛	帛	帛, 紬	參배/명주/공단/인조견/육양목/명목/인조마포/ 백색/홍색/소색/백색에 가까운 연한 색/	參배/명주/공단/인조견/육양목/명목/인조마포/ 백색/홍색/소색/백색에 가까운 연한 색/	帛	帛, 熟絹	紬
色	裏	纁	纁	纁	纁	纁	纁	진갈색, 연갈색/홍색/연보라색/ 소색/모색, 홍색/홍색/홍색/홍색/홍색/홍색/	진갈색, 연갈색/홍색/연보라색/ 소색/모색, 홍색/홍색/홍색/홍색/홍색/	纁	纁	纁
形態					遺物	現行	家禮	大明集禮 庶人 (唐, 宋)	文公家 禮節	儀禮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33.	
												家禮

남색, 홍색 등 다양한 색을 나타내었고, 현행에서는 유물에서와 같이 다양한 색은 아니었으며 백색, 흑색, 소색, 백색에 가까운 연한 색이조를 이루었다.

형태의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예서들의 내용이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표 1에서는 한 개의 그림으로 대신하여 나타내었고, 중국의 예서에서는 문공가례의절에서의 경우를 인용 제시하였다.

유물에서의 끈의 위치는 폭의 네 귀퉁이에 위치한 경우와 끈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전체적인 형태는 조선시대 예서와 유물에서의 幪目的 형태가 비교적 유사하였다. 특히 현행에서의 幪目的 형태는 차이를 보였는데, 조선시대 예서와 유물에서와 같이 가운데는 사각형의 형태에 네 귀퉁이에 끈이 달린 형태도 있었고, 얼굴의 둥근 형태와 유사하게 형태를 나타낸 경우도 있어서 幪目的 형태 면에서의 차이를 알 수 있었으며, 조선시대 예서와 유물에서의 사각형 형태에서 얼굴모양의 둥근 모습으로의 형태상의 변천적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크기나 색의 사용, 끈의 유무 등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중국의 禮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家家禮'라고 하여, (장철수, 1988) 家禮의 내용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혼상제에 대한 규정을 집집마다 각각 집안의 禮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遺物이나 現行의 내용에서도 같은 이유로 집안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V. 結 論

이상과 같이 韓國 文獻과 遺物, 現行과 中國 文獻에서의 幪目的에 대하여 치수 및 形態, 衣次, 色 등을 比較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韓國 文獻에서의 幪目的에서는 치수는 方尺 2寸이었으며, 形態는 동일하였고 끈의 수는 4개였다. 衣次는 帛이나 紬가 대부분이었고,

색은 검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이 많았다.

2. 遺物에서의 幪目的은 치수가 다양하였고, 形態는 사각형에 끈이 달린 형태나 끈이 없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衣次는 貢緞, 明紬 등이었고, 色도 多樣하였다.
3. 現行에서의 幪目的은 文獻과는 달리 치수와 形態가 여러 가지였다. 또한 衣次와 色도 多樣하여 많은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4. 中國에서의 幪目的은 치수에 있어 方尺 2寸, 方尺, 方尺 5寸 등으로 다양하였고, 衣次는 帛이나 絹이었으며, 色은 玄纁, 緋經 등으로 검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이었고, 形態에서는 끈이 4개였다.
5. 幪目的의 치수, 形態, 衣次, 色 등을 比較해 본 결과, 치수 면에서 한국문헌에서와 중국문헌에서의 큰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衣次와 色은 상당부분이 類似하였다.

形態에서는 韓國의 文獻적인 내용과 遺物에서의 내용이 類似하였으며, 특히 現行 幪目的에서는 모든 면에서 文獻 및 遺物의 내용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男子와 女子 襜衣의 共用 品目인 幪目的에 대하여 치수, 形態, 衣次, 色 등을 比較해 보았는데, 앞으로 韓國의 문헌, 유물, 현행의 내용에 대하여 中國 文獻자료의 확대는 물론 중국에서의 유물·현행자료와의 비교분석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現行研究의 調査地域 및 對象의 擴大와 出土服飾 襜衣와의 比較 등을 통하여 각 品目에 대한 深層의인 比較 分析은 물론, 體系化 및 合理的인 보급을 위한 多角的인 努力이 기울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幪目的, 形態, 치수, 의차, 색

## 참 고 문 헌

- 고부자(1997).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 고씨 유물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 15.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77, 98.

- 곽명숙(1999). 우리나라 수의문화와 제작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 대학원, 24.
- 국립문화재연구소(1998). 침선장. 계문사, 209-210.
- 國立民俗博物館(1990). 韓國 喪葬禮. 미진사, 77.
- 金東旭·劉頌玉(1980). 忠北 靑源郡 傅朴將軍墓 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83號, 文化財管理局, 68-69.
- 金東旭·劉頌玉(1980). 忠北 靑源郡 求禮孫氏墓 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 第83號, 文化財管理局, 16-17.
- 金斗憲(1936). 五服制度의 研究. 震檀學報, 5, 43.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1997). 한국한자어사전. 3, 단국대학교 출판부, 564.
- 朴惠仁(1988).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5-6.
- 신준호(1991).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508.
- 양주동(1988). 현대국어 대사전. 일증당, 198.
- 劉寬順(1990). 우리나라 襖衣에 關한 研究 -朝鮮朝를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劉寬順(1995). 中國 襖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25. 韓國服飾學會, 105-107.
- 劉頌玉(1998). 韓國服飾史. 修學社, 331.
- 柳喜卿·金美子·姜淳弟(1989). 安東金氏 墳墓 發掘 調査 報告書. V. 斂襲衣. 溫陽 民俗博物館 學藝研究室, 277.
- 李樹鳳(1986). 百濟文化圈域의 喪禮風俗과 風水說話研究 -湖西·湖南地方을 中心으로-. 百濟文化開發研究院, 9.
- 李正玉(1974). 韓國의 四禮服飾에 關한 一研究. 研究論文集, 8輯. 嶺南大學校, 402.
- 임돈희(1996) 祖上祭禮. 대원사, 8.
- 임명미(1997). 한국의 복식문화(II). 경춘사, 531.
- 張哲秀(1988). 韓國傳統社會의 冠婚喪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1-16.
- 정정완(1999). 해뜰이에서 해넘이까지-침선장 정정완의 손길-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주최. 전시회 도록. 탄생IV. 4.
- 趙又玄(1989).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研究. 淑明女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56-157.
- 趙孝順(1988). 韓國服飾風俗史 研究. 一志社, 301.
- 弘字出版社 編輯部(1984). 國漢最新大字源. 民衆書林. 537.
- 正文公愼終錄(金洙根: 1798-1854). 襲具.
- 忠文公愼終錄(金炳國: 1825-1904). 襲具.
- 韓山李氏愼終錄(金貞圭의 妻<韓山李氏>: 1865-1915). 襲具.
- 丘濬 輯(1626).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4-5.
- 金長生 編(1646). 疑禮問解. 卷 1. 張 51.
- 金長生 輯(1685). 家禮輯覽. 卷 4. 張 18-19, 張 46, 圖說 張 36.
- 申叔舟 等 受命 撰(1475). 國朝五禮儀. 卷 7. 張 12.
- 申義慶 著(1621). 喪禮備要. 卷 上. 張 6, 圖. 張 4.
- 俞榮·尹宣學 撰(1742). 家禮源流. 卷 6. 張 19, 張 25.
- 柳長源 著(1783). 常變通攷. 卷 7. 張 28-29.
- 李宣朝 著(1824). 家禮增解. 卷 3. 張 75, 卷 4. 張 28.
- 李粹 編(1844). 四禮便覽. 卷 3. 喪禮 1. 張 10, 喪圖 2.
- 李懋 編(1867). 四禮纂說. 卷 3. 張 21.
- 鄭玄注, 賈公彥疏. 儀禮. 卷 12. 張 2.
- 曹好益 撰·金埴 等 編(1646). 家禮考證. 卷 6. 張 14-16.
- 朱熹 編(1759). 家禮. 卷 4. 喪禮 1. 張 5.
- 太祖 撰(1369). 大明集禮. 卷 37. 張 2, 張 42.